

기초수급제도 13년만에 전면 개편... 月소득 200만원 미만 차등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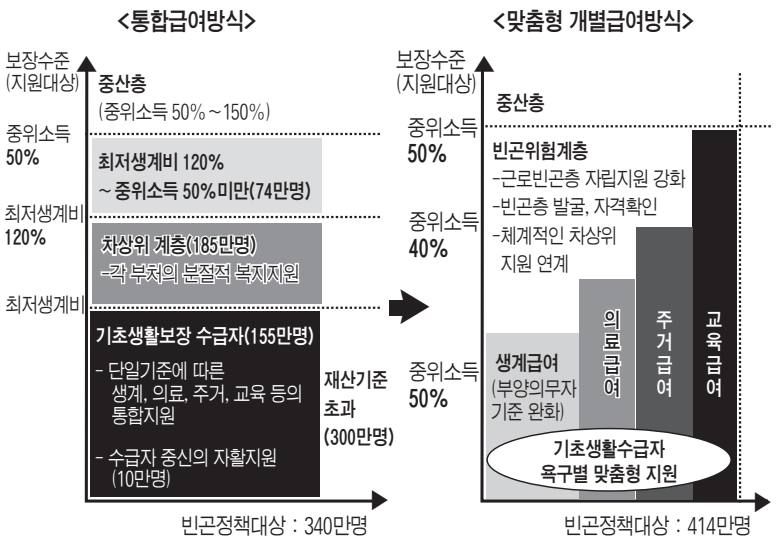
※1. 홀로 생활하는 김모(여·78·광주시 서구)씨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했다. 따로 거주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29)의 월 소득이 209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194만원을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노령연금 9만1200원으로 생활했다.

이씨는 “아들 내외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나까지 신세지면 되겠느냐. 나라에서 도움 좀 받고 싶지만,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 광주시 동구에 사는 이모(여·58)씨는 지난해 초 “아들(38)이 지난해 상반기 공사장 일용노동자로 일하며 월 180만 원씩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엔 아들이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지만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다”며 “당시에도 월 180만 원씩 벌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훨씬 적게 벌었다”고 항변했다.

■ 맞춤형 복지지원 전환 개념도



통합급여방식서 맞춤형개별급여방식으로

74만명 추가 혜택...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이 같이 우리 사회엔 최저생계비 기준 등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이들이 많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지역 기초수급자 수는 모두 6만684명이다. 구별로는 ▲동구 6894명 ▲서구 1만1951명 ▲남구 9307명 ▲북구 2만591명 ▲광산구 1만1941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오는 4월까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 13년 만에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등 7가지 급여와 함께 통신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 반면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한 번 기초수급 자격을 얻으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

이런 전부 또는 전무 방식의 기초수급 급여 체계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약간 넘는 사람이라도 앞으로는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중앙에 오는 가구 소득, 2011년 4인 가구 기준 397만원)의 30%(4인 가구 기준 119만원)인 가구까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35%(139만원)까지는 의료·주거·교육급여를, 40%(159만원)까지는 주거·교육급여, 50%(199만원)까지는 교육급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던 7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복지 서비스 수혜자가 기존 340만명에서 414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다음달까지 이 같은 변경안을 확정해 내면 하반기 중 시행할 것으로 안다”며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바뀌면 기초생활수급 부정 대상자 수도 잠정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정적인 부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부담을 없애나가면서 2016년까지 기존 보육료 지원 단가를 약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13년 만에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노인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한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를 찾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적용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이른

바 ‘3대 비급여’ 부분 환자 부담을 덜 방법을 찾기 위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칭)도 이달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회복지 공무원 1명이 최고 1000명 관리

복지전달 체계 누수 초래... 인력·업무분장 문제 해결 시급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자살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흔히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인원만 적게는 100~2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서류 작업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 복지의 누수 현상을 감득할 업무도 못 내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 없이는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복지가 필요 없는 곳에는 흘러가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사망 후에도 계속 급여와 연금을 받는 것은 향후 복지 제정을 위협하는 큰 문제다. 이 때문에 복지

현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바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등을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인력만으론 부족하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사망 의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인력 부족 때문에 조사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1%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중복 및 부정수급 여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 부처 복지사업을 연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했다.

여기에 2014년까지 700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현재 주민센터에서 벌어지는 사회복지 전달 공무원들과 다른 공무원들 간 업무 분장 문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없이 인력 증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종행기자 golee@

광주시 복지공무원 274명, 보조금 대상자는 14만5000명

보육비·학자금 신청 등 업무 폭주 1명당 529명 맡아... 기피부서로 전락

광주지역 각 구청과 동(洞)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요즘 늘어난 복지 업무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올 들어 전면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이 쏟아지면서 영유아 보육비 신청, 저소득층 학자금 신청 등 업무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및 의료보건 서비스만 해도 20가지로 이들 서비스에 지난해 책정된 예산만 6953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대부분 각 지자체별로 몇 안 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을 통해 집행된다.

각종 복지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는 274명이며 보조금 대상자 수는 14만5000명이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한 명당 529명의 보조금 대상자를 맡고 있는 셈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사

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일손은 더욱 바빠졌다.

지난해 말 현재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지원’사업 신청건수는 2만457건. 이중 1만1342건의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건수도 971건(지원금 9억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3건(지원금 4억6천600만원)에 비해 252.2%(588건) 늘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하루 평균 받는 통화 수만도 무려 30여 통, 요즘은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최근 각종 복지수당 지급이 늘어나고 액수도 커지면서 민원인들도 민감해져 전화도 늘었고, 항의 강도도 훨씬 세졌기 때

이다.

이 같이 사회복지직은 공무원 사회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기피부서가 된 지 오래다. 복지업무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제자리로 업무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북구청에서 20년 넘게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한 김모(여·60)씨는 “기초수급생계를 제 시간에 주지 않으면 항의전화는 물론 쫓아와 따지는 일은 다반사다. 생계를 가불해 달라고 생떼를 쓰는 민원인도 있다”며 “복지업무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복지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등 복지 문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매 · 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무정원) 광주 서구 능동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 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 재 지 : 광산구 산정동
- 면 적 :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지 목 :잡종지
- 입지조건 :대형차량진입 가능
- 허용용도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정비공장 차고 및 주시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 상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권장 용도 :학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영 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초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 “담양” 무인텔
- 객 실 : 32개
- 현 상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장(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중앙공인중개사

♣.부동산 구함

☆.아파트 밀집지역 병 의원
신축부지 약 250평 내외

☆.지하철 운천역 인근 광송간
대로변 사옥부지 150평 내외

♣.대지.전.답.임야

☆.광산구 동산동 학동마을 인근
전 5,400㎡(1,634평)

매매가 평당9만원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사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매매가 평당150만원

☆.광산구 송촌동 자연녹지
답2,988㎡(904평)

매매가 평당60만원

♣.전원주택지

☆.광산구 오운동97번 시내버스중
점 전원주택지(전망좋은)전2,

436㎡ (737평) 매매가 평당 27
만원

총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소문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분과 연일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히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223-1772 현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